

위탁경영 방식으로 베트남 등 본격 해외진출

호텔신라, 글로벌 호텔로 도약

면세점사업 이어 호텔 사업 가속
美·中·동남아 등 10여개국 진출

브랜드·호텔 경영 노하우 수출
사업 리스크 최소화·수익 확보

호텔신라가 면세점사업에 이어 호텔 사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확대한다.

15일 호텔신라 측은 “이르면 올해 말 베트남 다낭에 사업 초기부터 운영까지 ‘신라’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이후 동남아시아, 미국, 중국 등 해외 10여 곳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면세점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인천공항 T1과 T2,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 트로이카 체제를 확립하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이어 올해는 호텔사업의 해외진출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호텔사업의 해외진출은 위탁경영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위탁경영 방식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호텔 경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



신라 모노그램.

/호텔신라

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 주력해온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 측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브랜드와 운영력 등 호텔 경영 노하우라는 무형자산을 해외에 수출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다낭에는 새로운 호텔 브랜드 ‘신라 모노그램(Shilla Monogram)’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 중인 신라 모노그램 다낭은 지상 9층 건물에 총 300여개의 객실로 조성될 예정이다. 객실, 식음, 피트니스·풀, 스파, 연회, 호텔 내외부 특별

액티비티 등의 풀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경험할 수 있는 고급 브랜드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신라호텔은 럭셔리 브랜드 ‘더신라(The Shilla)’, 고급 브랜드 ‘신라 모노그램’,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Shilla Stay)’로 3대 호텔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라호텔 측은 “2021년에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산호세)에 200여개 객실 규모로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피로 해소... 활성비타민 ‘벤포벨’ 주목

Advertorial Corner

중근당 고함량으로 약효 오래 지속



최근 고함량 활성비타민이 육체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근당의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 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

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 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의 크기를 줄여 목넘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박인용 기자

‘조기발병 위암’ 원인 유전자 찾았다

이상원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의학·화학·SW 협업 연구로 규명
발암상관관계 변이유전자 3개 발견

지난 5년간 80명의 조기발병위암 환자로 부터 암조직과 주변 정상조직을 얻어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으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기발병위암 연구를 진행했다.

40대 전후의 젊은 나이에 주로 발병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는 빨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조기발병위암’의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의학·화학·SW학과 협업 연구 성과로, 조기발병 위암의 진단과 치료법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는 유전단백체연구센터 이상원(화학) 교수 연구진이 조기발병위암 환자들에 대한 유전단백체연구를 통해 조기발병위암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뉴 바이올로지 황대희 교수,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이상혁 교수,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백은옥 교수 등 11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위암은 폐암, 간암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 이상을 사망케하는 흔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이다. 위암은 보통 30세 이전엔 거의 발병하지 않다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발병률이 상승해 40~70대에 주로 발병한다. 발병시기가 40대 전후인 위암을 조기발병위암이라 하는데, 국내 위암 환자의 약 15%나 차지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내 기초연구자·위암임상연구자 11명이 참여한 연구진은 협력연구를 통해

그 결과 약 7000여개의 체세포 변이 유전자 중 조기발병위암의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이 유전자(CDH1, ARID1A, RHOA)를 찾아냈고, 이 유전자들이 조기발병위암 발병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또 같은 위암환자라도 각각 다른 치료반응을 나타내는 4가지의 위암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4가지 위암 유형은 각각 다른 세포 신호전달경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보다 정밀하게 위암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조기발병위암은 최근 국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그 발병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다 정밀한 유전적 발병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위암환자의 정밀한 진단과 개선된 치료방법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암 연구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캔서 셀(Cancer Cell) 1월 14일자(한국시간 1월 15일 오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용수 기자 hys@

“없어서 못판다”... 키즈 롱패딩 완판행진

성인용 롱패딩 실적 부진
아동용 판매 성장세 견인
패션업계 키즈 시장 확대



머렐 키즈 벤치다운.

/머렐

불황에 시름하는 패션업계에 ‘키즈시장’이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성인용 롱패딩은 올해 쓸쓸한 기록을 쓰고 있지만, 아동용 패딩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아동용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패션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특히, 아동용 롱패딩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각 업체들은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내놓는 등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의 지난해 키즈 롱 다운자켓 판매량은 전년 동기과 대비해 300% 이상 상승했다. 재작년 베스트셀러였던 ‘비틀 키즈 롱 다운자켓’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는 한편, ‘스테를 구스 키즈’, ‘베블키즈 다운자켓’의 디자인과 색상을 다양화한 결과다.

‘키즈 밀포드’ 등 다양한 키즈 롱패딩을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나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올 시즌 키즈 아우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반면, 성인 롱패딩 판매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롱패딩 광풍’에 힘입어 올해는 물량을 더욱 늘렸으나, 예상보다 따뜻한 기온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롱패딩의 인기는 시들해진 분위기다.

실제, 지난 시즌에만 롱패딩 30만장을 판매한 디스커버리의 경우, 올 겨울을 앞두고 롱패딩 60만 장을 생산했다. 1년 만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계의 ‘키즈시장’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롱패딩’ 사례처럼, 같은 고가의 제품이라도 아동용은 팔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고가의 제품도 아낌 없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업계도 키즈 시장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대원제약 유기농 프로바이오틱스로 홍콩 진출

대원제약이 홍콩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지난해 9월 홍콩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천연유기농 박람회’(2018 NOPA)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수 개월의 테스트 마케팅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홍콩에 정식 출시됐다.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는 홍콩 현지 유기농 전문 스토어, 클리니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높은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로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홍콩 단일국가로만 올해 수출액 100만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은 특허받은 유산균인 ‘로셀균주’와 성인인과 아이의 장 환경에 따른 맞춤형 복합균주를 사용했으며, 마이크로



캡슐공법을 적용해 보다 많은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성인용인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와 유아용 제품인 ‘장대원 네이처 키즈’ 2종으로 출시돼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등 5가지 화학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장일무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삼산업사 출간

인삼에 얽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삼의 세계적 위상과 발전사를 산업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한국인삼산업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고려인삼’의 실체와 명성에 대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고려인삼의 뿌리 찾기’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특산식품인 인삼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역사적 흐름을 조명한다.

저자인 장일무 서울대 명예교수는 “고



저술 배경을 밝혔다.

/박인용 기자